

여수세계박람회장 국비 중단땀 활성화 비상

예산 일몰제로 내년 지원 끊겨... 운영난 불가피

영업 이익, 운영비의 절반 그쳐... 계속 지원을

내년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예산 지원기간이 올해로 '일몰제'를 맞았다.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 '제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장객이 증가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박람회장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은 입장객은 모두 74만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3405명보다 13.2% 증가했다. 3월 말까지 임대수입은 3억7000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1000여만 원보다 235% 늘었다. 지난해 31일 개장한 국내 유일의 해상 멀티미디어 쇼인 '빅오쇼' 입장객도 5548명으로 전년보다 71.7%가 늘면서 입장료 수입도 6400여만원으로 전년의 5800여만 원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입장객과 수익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길 처지여서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정부

의 중기 예산계획에 따라 5년 동안의 예산 지원 기간이 올해로 '일몰제'를 맞았다. 그동안 정부는 2014년 69억원, 2015년 75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2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박람회장 운영에 사용한 예산은 모두 11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재단이 운영하는 빅오쇼 등 자체 수입인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경우 필요예산의 절반 수준인 57억원에 그쳤다. 박람회장 임대 사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데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의 증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2019년까지 세금 100%를 감면 받게 돼 있지만 2016년부터 적용된 '최소 납부 세제'에 따라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장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2015년까지 3억여원이던 것이 지난해부터 8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정부에 30억원 안팎의 내년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지난해 관람객 300만명을 끌어들이며 지역의 성장동력 역할을 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정부의 중기예산계획이 박람회장 임대 사업 활성화 등을 가정하고 5년 지원으로 정해졌으나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해 운영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다"며 "어떻게 해서든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정부와 협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박근혜 대선전 첫 재판

다음달 2일... 출석 안할 듯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 대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에 대선 전에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대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법정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절차가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예상보다 이르게 기일을 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탄직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수도 있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22부는 이날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 사건을 추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택은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주말에 이곳으로 집을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40억 '실탄' 확보... 거물급 변호사 영입하나

매각 삼성동 자택 70억

매입 내곡동 주택 36억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거주한 삼성동 자택을 전격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달 2일 본격 재판 시작을 앞두고 중량급 변호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의 감정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사들이는 내곡동 자택이 36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매매 차액은 30억~35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보유한 예금 10억2800여 만원을 더하면 약 40억~45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셈이다. 이 자금은 상당 부분이 법정 다툼에 쓸 '실탄'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한편 흥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사들인 주인공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흥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박 씨와 전혀 친분이 없다는 게 흥 회장이 여러 차례 밝힌 입장"이라며 부인했다. /연합뉴스

충남 당진 출신의 흥 회장은 1980년 마리오아울렛을 설립해 1985년 '까르뜨니트'라는 패션 브랜드를 내놓고 성공하며 패션·유통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앞서 2015년 12월 마리오아울렛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 약 5만 7000㎡(1만7000여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허브 농장 '허브빌리지'를 인수했다. 이 '채류 농장'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소유였으나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매물로 내놨고, 이를 흥 회장의 마리오아울렛이 118억 원에 사들인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2016 시정 통계 '광주의 하루'

광주 노인 일자리 59% 증가

1만4178명... 일자리사업 효과 출생 32·사망 20명... 148만

지난해 광주시의 노인 일자리가 1만 4178명으로, 2014년 대비 59.20%가 늘어났다.

광주시가 23일 발간한 2016년 시정 통계에 따르면 2014년 8906명이었던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15년 1만1236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만417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광주시의 인구는 150만명을 넘지 못하고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광주시의 인구는 148만9134명으로 집계돼 전년 149만647명과 비교해 1513명이 줄었고, 2014년 149만2948명에 비해서는 0.26%가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150만명 턱 밑에서 주저앉은 셈이다.

남자는 73만8825명, 여자는 75만309명으로 여자가 1만633명 많다. 세대수는 58만6464세대로 오히려 6000여세대가 늘어 1인 가족 증가 등을 반영했다.

구별 인구는 동구가 9만7045명, 서구는 31만1281명, 남구 22만1189명, 북구 44만5663명, 광산구 41만3956명이다. 동구는 북구나 광산구와 비교해 4분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광주 거주 외국인 수는 1만9920명으로, 전년 1만 8448명, 2014년 1만7064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하루 평균 32명의 새 생명이 탄생했고, 20명이 사망했다.

또한, 하루 평균 20쌍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8쌍은 서로 갈라졌다. 전년과 비교해 출생과 혼인은 하루 평균 2명과 2건이 줄었다. 사망과 이혼은 늘었다.

심각한 출생률 저하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현 실태가 통계에서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하루

출생	32명
사망	20명
혼인	20쌍
이혼	8쌍
급수이용량	41만6천톤
전력사용량	23.442kWh/h
석유소비량	2.836kl
민원서류처리	18.945건
자동차등록	60대
생활폐기물발생량(2014년)	1273t
지방세징수	46억원
인구이동	1.190명
교통수송(시내버스·지하철)	43만6천명
건축허가	8동
화재발생	3건
도시가스소비량	163만1천㎥

물 사용량은 41만6000t, 전력은 2만 3442kWh/h, 석유는 2836kl, 도시가스 소비량은 163만1000㎥로 집계됐다.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273t으로 5t 트럭 255대에 달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 등으로 전년보다 43t 줄었다. 하루에 1190명이 광주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시·도로 떠났으며 버스타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은 43만6000명이다.

자동차는 하루에 60대씩 새 번호판을 달았으며 매일 8대가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졌다.

전년 건축허가 건수 12채와 비교하면 3분 1이 줄어난 셈이어서 심각한 경기난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방세로 하루에 46억원씩 거뒀다. 전년 수실적은 42억5700만원이었다.

하루에 처리한 각종 민원서류 건수는 1만8천945건에 달했고, 매일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농어가 인구 3년만에 증가...2547명 늘어

지난해 전남도내 농어가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농어업 특산물 산재해 있는 전남의 22개 시·군에 귀농, 귀어, 귀촌하는 도시민 덕분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 인구는 약 7만2981명(2.4%)이 감소한 반면 전남의 농가 인구는 2547명(0.6%)이 증가한 32만1395명이었다. 전국 어가 인구는 2692명(2.1%)이 줄었지만 전남 어가 인구는 444명(1.0%)이 늘며 4만

426명이었다. 전남의 농어가 인구가 증가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이처럼 전남 농어가 인구가 늘어난 것은 최근 저성장 경기 침체 속에서 도시 은퇴자들이 꾸준히 전남으로 귀농, 귀어, 귀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조선업 퇴직자들이 도내 농어촌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최근 급증하는 예비 귀농·귀어·귀촌 도시민들을 위해 지난해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시: 2017. 5. 9(화) 오후7시
- 장소: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시: 2017. 5. 16(화) 오후7시
- 장소: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사주+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업승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액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임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임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토지

- 율전동 생산녹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서양새마을금고 공고 제2017-1호

부동산매각입찰공고

1. 입찰물건 목록

가. 광주시 남구 서동 241-2
대지(199㎡), 3층건물(282.71㎡)
최저예정가격(W481,566천원)

나. 광주시 남구 양림동 93-26
대지(168㎡), 2층건물(198.11㎡)
최저예정가격(W420,172천원)

2. 입찰일시

2017. 4. 26. (10:00 ~ 11:20)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불임서류 등은 서양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cafe.daum.net/seoyang)에서 확인.
문의 062-720-2871

서양새마을금고